

2023-10 대만 선교 소식

주안에서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들께

평안(平安)! 시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 한달 동안도 요란한 세상속에서 저희를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은 늦더위가 계속되어 아직도 낮에는 30도를 오르내리지만 하늘은 한국의 가을 하늘처럼 높고 푸릅니다. 한결 같은 시간의 흐름을 보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창조의 섭리를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요즘은 성탄절을 앞두고 협력 교회들로 하여금 전도 대상자를 정하여 기도하고 심방하며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주베이 교회 전도의 열매

주베이 교회는 담당 교역자인 마 전도사님(76세)이 봉헌한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작년에 민원이 들어와서 집회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이 작은 가정교회가 유일한 교회이고 주변에는 30개가 넘는 불교/도교사원들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까워 미신이 많고 조상숭배를 중시하는 객가(客家)인이 많아 교회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3년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비록 교인은 적지만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귀고 꾸준히 전도한 결과 한 명씩 교회를 찾는 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불교를 믿는다고 교회에 오기를 꺼려했던 이웃 할머니 한 분이 연속 두 주를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저희가 낙심하려 하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십니다. 마 전도사님은 이웃 부녀들 전도를 위해 천연 염료로 머리 염색하는 법을 배워서 주민들에게 염색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든 한 영혼을 얻기 위해 기도하며 전심을 다하는 노종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12/17 주일에는 세 교회가 연합하여 성탄절 전도집회를 갖기로 하고 전도대상자 명단을 놓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배에 참석한 자매(왼쪽 둘째)



머리 염색을 통한 이웃 섬김

삼성교회 전도활동

삼성교회를 담당하는 장목사님 부부도 폐쇄되었던 교회를 다시 문을 열고 4년간 열심히 이웃을 사귀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시골교회의 특성상 유동 인구가 적고 젊은이들이 적어 사랑으로 섬기고 돌봐야 할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에서는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이들은 교회에서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비록 주일예배시간에는 나올 수 없더라도 주안에 한 가족임을 그들이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가정을 심방하고 교회를 집처럼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때에는 교회마당에서 20여명이 대만의 추석풍속인 바비큐 파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개척교회이기에 더욱 열심히 전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우심방-남편구원을 위해 기도



추석에 교우가족을 초청하여 교회마당에서 만찬



10/14일에는 지역의 3개교회가 연합하여 사회빈곤층 대상의 “사랑의 손길 초청 잔치”를 진행했습니다. 삼성교회는 50가구에 보낼 선물을 준비하는 일을 맡아서 온 교우들이 봉사하며 보람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연약한 교회이지만 사회를 향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교회로 가야 함을 권면하면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삼성교회를 통해 삼성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손길 초청 잔치' 준비



50가구를 위한 선물 준비



'사랑의 손길 초청 잔치'를 마치고

베이따 교회 바이린 자매

바이린 자매는 저희가 대만에 간 첫해에 베이따 교회에서 만난 이웃으로 활달한 성격과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랑스런 자매입니다. 그 자매를 통해 1년간 이웃 전도를 위한 독서회를 인도하기도 했는데 정작 가족들은 주님을 믿지 않아 가족 복음화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여 왔습니다. 자매는 우리 부부가 처음 정착할 때부터 생활과 사역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준 이웃이자 동역자로 대만에서 만난 '브리스길라' 입니다.

그런데 몇 주전에 친정 엄마를 모시고 우리집에 와서 교제를 나눈 바로 다음날 아버님이 위독해지셔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지역의 유지로 영향력 있는 분이신데 복음에 대해 매우 완강히 거부하셔서 그간 전도가 참 어려웠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바이린 자매가 비록 막내딸이지만 영적인 리더로서 가족 구원을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계속 상기시키며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전통적인 불교 집안에서 연약한 딸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두렵고 버거운 일임을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 부부도 날마다 그와 함께 짐을 지는 기도를 하며 소식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들은 소식은 대만인 목사를 통하여 병상에서 부모님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자녀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묘하게 바이린으로 하여금 장자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장례식 때도 교우들을 초청하여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매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날 밤에 제일 먼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가장 위로가 필요할 때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격려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저희도 강력한 종교의 장벽을 깨뜨리고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함께 경험하면서 더욱더 이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정작 어려울 때 생각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얼마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 일로 바쁘기보다 내가 절실히 필요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만에서 만난 '브리스길라' 바이린 자매



전통 장례식에서 교회 성가대 찬양을 통한 전도

객가(客家)인 선교

하나님께서 최근 2년동안 특별히 객가 부흥운동을 일으키셔서 객가인 부흥을 위한 기도와 연합집회가 매월 지역을 달리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객가 선교 신학원과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객가 송전당(客家崇眞堂) 협회에 협력 선교사로 초청받아 설교 및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타이베이에서 가진 '객가부흥을 위한 기도모임'에는 전국에서 약150명이 모여 뜨겁게 기도하였는데 객가인 뿐 아니라 범교회적으로도 진행되었고 기독교 TV에서도 관심있게 보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객가인 교회를 통해 선교의 불을 붙이시고 다른 교단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고 계심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객가 연합회를 섬기도록 선출된 대표 이사사진



객가 집회에 초대된 대만 장로교 총회장과 함께

기타 일정

1. 나사렛 신학교를 방문하여 신학원 원장과 담화하고 “광야에 세우는 십자가” 책 30권 기증.
2. 10/29 따푸 교회(객가 교회) 주일 예배 설교

기도제목

1. 11/8일 객가신학원 채플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신학생들에게 영적부흥과 도전이 있게 하소서.
2. 11/5일 흥산교회 설교 및 11/18일 객가인 연합 선교회 모임을 통해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3. 12/17일에 주베이, 흥산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준비하는 성탄절 전도집회를 위한 장소와 예산, 도울 손길을 공급해 주소서.

2023년 10월 31일 , 황창연, 오순영 선교사 올림